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신체활동 실시상의 어려움에 대한 원장(원감) 및 교사의 인식 연구*

김길숙¹⁾

요약

본 연구는 원장(원감) 및 교사가 인식하는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신체활동의 실시상의 어려운 점과 유아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개선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유아기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원감) 및 교사 총 1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신체활동 실시의 어려운 점으로 첫째, 신체활동 기구 사용에 대한 관련 지식 부족, 둘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신체활동에 대한 태도, 셋째, 물리적 공간 이용의 한계, 넷째, 부모의 태도, 다섯째, 정보 습득의 한계였으며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요구 사항으로 첫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둘째, 프로그램 활용 방법을 설명한 동영상 제작, 셋째, 교사 재교육시 신체활동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 넷째, 부모 교육이었다. 유아기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1. 부모의 자녀 육아에 대한 역량 강화, 2.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부모, 기관 및 지역 연계 강화, 4. 실내 체육 시설 확충”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유아기 건강, 신체활동,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I. 서론

우리나라 유아의 신체활동 참여 시간은 정부에서 제시한 1일 1시간 이상의 바깥놀이 시간 확보 지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 김미숙 외(2013)의 연구에 의하면

* 본 연구는 ‘김길숙·박원순·송신영(2015). 유아기 건강증진 지원방안 연구: 신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1) 삼육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3-5세 유아의 경우 30분 이상 운동한 날이 주 2회 이하인 경우가 32.1%였으며 30분 이상 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도 40.9%였다. 또한 김길숙 외(2016)의 연구에 의하면 4, 5세 유아의 놀이터에서 놀이하는 주당 횟수는 2-3일이 47.6%로 과반수였으며 1회 놀이터에서 노는 평균 시간도 56분 정도로 1시간이 채 안되었다. 게다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50분 정도로 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에 비해 10분 정도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유아기에 활발한 신체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유아의 신체활동 참여 상황은 좋지 않다. 이에 반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3-5세의 설당, 물엿, 사탕, 초코렛 등이 포함된 당류 섭취는 2012년 9.2g에서 2015년 10.3g으로 증가하였고, 에너지 섭취량과 지방 섭취량도 2012년에 비해 2015년에는 각각 92.37kcal, 1.64g의 증가를 보여 유아의 인스턴트 등의 고칼로리 및 영양 과잉 섭취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따라서 유아의 신체활동과 영양 및 식습관 관리 등 유아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모 및 교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듯 유아 시기의 꾸준한 신체활동과 올바른 식품 섭취 및 식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신체활동량의 부족과 바람직하지 않은 식품 섭취가 아동 비만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2013년 우리나라 아동의 과체중을 포함한 비만율(남아 25%, 여아 20%)은 OECD 아동 비만율 평균(남아 23%, 여아 21%)보다 남아의 경우 2%p가 높다(OECD, 2013). 뿐만 아니라 2011년(남아 16.2%, 여아 9.9%)과 비교할 때, 각각 8.8%p, 10.1%p의 증가(OECD, 2011)를 보여 짧은 시간 내 급격한 증가로 인한 아동 비만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 비만은 성장기의 아동에게 있어서 신체 건강에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자아상 형성과 이로 인해 또래 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정신건강에도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김진희, 2012; 이행신 외, 2014; 전숙영, 2008; Sandra & Solveig, 2015; Schwartz et al., 2010). 비만아동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래와의 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경향을 보인다(이행신 외, 2014; Sandra & Solveig, 2015). 또한 아동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을 야기하는 성인 비만으로 이어져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김진희, 2012; 이행신 외, 2014; WHO, 2015). 따라서 조기에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신체활동을 습관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동 비만은 신체활동의 부족, 식습관, 유전적 요인 등의 원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이행신 외, 2014). 그러나 유전적인 요인은 비만이 될 수 있는 소인이 될 뿐 만드

시 비만이 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보다 비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만이 아니라 신체활동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고(WHO, 2015) 이는 어려서부터의 교육을 통해 형성 가능하다(OECD, 2013). 즉, 칼로리 섭취와 칼로리 소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습관이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유아들의 식습관은 패스트푸드 및 단음식 등 정크푸드의 섭취가 증가하면서 서구화되는 반면, 부모의 교육열로 인해 조기부터 사교육에 노출되고 바깥놀이를 할 시간의 부족, 자동차 등으로 인한 안전한 실외 놀이 환경의 부족, 인터넷 게임 등 정적인 활동의 증가로 인해 신체활동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아동에게 매일 최소 60분의 중등도에서 격렬한 강도의 신체활동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WHO, 2015). 그러나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우리나라 유아의 신체활동 시간을 살펴보면 3-5세 유아의 신체활동 시간은 30분 이상의 운동을 주 1회도 한 적이 없는 경우가 40.9%였고(김미숙 외, 2013), 장시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머무르면서 정적인 활동인 이야기 나누기(유치원 주 4.4회, 어린이집 주 3.6회) 등의 활동 시간이 많은 반면, 주당 신체활동은 유치원 2.1회, 어린이집 2.4회 수준으로 활동 빈도가 낮았다(김은영 외, 2012). 이러한 결과는 취학 전 유아의 신체발달 형성을 건강하게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및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면이다. 하지만 현행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건강 증진 지원정책 사업은 초등학교 이후 아동기와 성인기 및 노년기에 편중되어 있으며 취학 전 유아를 위한 사업은 미비한 실정이다(민정원 외, 2014). 따라서 아동 비만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비만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한 신체활동 및 올바른 영양·식습관의 중요성을 공론화하고 국가적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2014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아동·청소년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관심을 넓히고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환경 조성에도 모호하고자 비만 예방의 날 행사를 통해 관련 홍보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 또한 장기적으로 지속될 필요성이 있는 비만 예방 사업의 한계를 보이며 단기적인 관심을 끌기 위한 행사에 머물렀다. 따라서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3세 이상 유아의 90% 정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을 정도로 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육아정책연구소, 2014). 기

관에서의 교육적 효과와 영향력이 큼을 감안하여 볼 때, 신체활동을 즐거워하고 운동의 습관화 형성을 돕기 위해서는 장시간 기관에 머무르는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 현실에서 유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감안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원감) 및 교사들이 인식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신체활동 실시상의 어려움 및 신체활동을 돕기 위한 요구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신체활동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들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분리해서 살펴본 연구가 일반적이며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경우가 대다수이다(강재희·문혜련, 2014; 김은희·유준호, 2012; 김외국, 2008; 김희영, 2012; 지성애, 2008). 구체적으로 강재희 외(2014)는 어린이집에 파견되는 체육교사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을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개방적 질문지와 면접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김희영(2012)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동작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하여 동작교육 활동을 위한 공간의 부족과 바람직한 신체표현 지도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제기하였다. 또한 주봉관과 김상겸(2016)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방과후 체육특성화활동 운영 실태와 유아교사의 인식을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유아체육전문 강사양성 등 방과후 체육특성화활동 활성화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시되고 있는 신체활동의 어려움에 대해서 신체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주체자로서의 교사의 관점뿐만 아니라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원감)의 관점을 함께 포함함으로써 신체활동의 실시상 어려움을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장(원감) 및 교사가 인식하는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신체활동의 실시상의 어려운 점과 유아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개선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 소수의 연구대상을 통해 이루어진 유아기 신체활동관련 연구에 대한 결과를 재확인하고 문제점을 재부각시키며, 유아기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원장(원감) 및 교사가 인식하는 신체활동 실시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원장(원감) 및 교사가 인식하는 신체활동 증진의 개선 사항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10월 15일에서 27일 사이에 유치원 교사 4인, 보육교사 5인, 유치원 원감 2인, 어린이집 원장 3인, 총 14명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다. 원장·원감 및 교사 들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보육)학을 전공했으며, 교사 경력은 4년에서 최대 24년까지의 교사 경력을 갖고 있었다.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연령	학력 및 전공	경력
원장 1	50세	석사(아동학)	8년(8년)
원장 2	48세	석사(아동보육)	24년(19년)
원장 3	44세	석사(유아교육)	18년(12년)
원감 1	45세	석사(아동학)	14년(9년)
원감 2	43세	석사(유아교육)	18년(12년)
보육교사 1	43세	학사(유아교육)	12년
보육교사 2	33세	학사(유아교육)	7년
보육교사 3	33세	학사(유아교육)	13년
보육교사 4	31세	학사(유아교육)	5년
보육교사 5	32세	학사(유아교육)	5년
유치원 교사 1	36세	석사(아동학)	11년
유치원 교사 2	30세	학사(유아교육)	4년
유치원 교사 3	35세	석사(유아교육)	10년
유치원 교사 4	29세	학사(유아교육)	4년

주: 원장·원감 경력은 '총경력 년수(원장·원감 경력 년수)'을 표시한 것임.

2.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유치원·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및 원장(원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실시되는 유아 신체활동의 현황, 문제점 및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2015년 10월 15일, 10월 26일, 10월 27일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은 교사 대상 2회와 원장(원감) 대상 1회, 총 3회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인터뷰는 면접용 설문지를 가지고 개방식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였다. 인터뷰 과정은 보이스레코드를 이용해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고 추후 전사하였다. 또한 관찰노트에 인터뷰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3. 자료 분석

심층면접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글자 크기 12pt, 줄간격 200%로 A₄ 용지로 100페이지였다. 연구문제인 신체활동 실시 시 어려운 점과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요구 사항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각 주제별로 전사 내용을 나누고 각각의 수집된 모든 자료를 여러 번에 걸쳐 충분히 읽은 후 의미 있는 단어를 코딩하였다. 코딩된 의미단위를 중심으로 전사본을 세밀히 읽어가며 개념들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검토한 후 하위범주들을 개념화시키는 과정에서 컬러 코딩방법을 사용하였고 최종 핵심주제로 신체활동 실시 시 어려운 점에서는 5개의 주제(신체활동 기구 사용에 관한 지식 부족, 교사의 태도, 물리적 공간 이용의 한계, 부모의 태도, 신체활동 실시를 위한 정보 습득의 한계),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요구 사항에서는 4개 주제(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프로그램 활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 제작, 교사 재교육시 신체활동 필수과목으로 편성, 부모교육)가 도출되었다. 분석된 자료는 인터뷰 시 같이 참여하였던 연구자에게 확인 작업을 거쳤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는 유아기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유치원·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원감) 및 교사가 인식하는 신체활동 실시상의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신체활동 실시의 어려운 점

원장(원감)과 교사들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신체활동을 실시하기에 어려워하는 점으로 신체활동 기구 사용에 관련된 지식 부족, 신체활동을 실시하는 주체인 교사들의 태도, 물리적 공간 이용의 한계, 부모들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신체활동에 대한 태도, 신체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정보 습득의 한계에 대한 점을 꼽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체활동 기구 사용과 관련된 지식 부족

교사와 원장들은 유아들의 신체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신체활동 진행시 사용되는 기

구들을 구비하고자 하지만 관련 기구의 비용이 많이 들고 구입을 하였다더라도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이 그 기구들에 대한 사용 방법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다고 토로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기구 사용에 대한 교사교육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새로 임용된 교사들에게 반복적으로 기구 사용에 대한 교육을 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야기한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시되는 유아의 신체활동은 담임 교사에 의해서 실시되는 경우보다 외부 체육 강사에 의존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치원에서도 아무리 비싼 세트도 체육용품을 사줘도 활용을 잘 못해, 말하자면 하는 방법을 대학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심층면접 2차, 10월 26일)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활용을 못해, 체육선생님이 하는걸 보고 ‘아, 저게 그렇게도 쓰여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심층면접 2차, 10월 26일)

2)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신체활동 관련 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대부분 여성으로 남성 교사가 극히 드물고 특히, 교사가 동적인 활동에 비해 정적인 활동을 선호할 경우에는 더더욱 신체활동을 꺼려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교사들은 신체표현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 많고, 예상하지 못한 유아들의 반응에 교사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보다는 진행이 수월한 정적인 활동들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교사의 신체활동에 대한 선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장시간 머무르는 유아들의 신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며 교사의 영향이 덜 미칠 수 있는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및 활동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신체표현 같은 부분은 더 많이 준비하지 않으면, 조금은 아이들의 반응이라든지, 교육적인 효과를 얻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서…” (심층면접 3차, 10월 27일)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여자 선생님들이 확실히 많고, 또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몸을 많이 움직이기보다는 뭐 좀 더 정적인 그런 활동들을 아무래도 좀 더, 실제적으로 그런 성향이 좀 더 많다 보니까 조금 취약하더라고요. 이런 체육적인 부분들이…” (심층면접 3차, 10월 27일)

“신체활동에 관심이 많은 교사는 그만큼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어렵고 부담스러운 선생님들은 더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심층면접 1차, 10월 15일)

“앉아서 상호작용 잘하는 게 훨씬 더 교육적이라고 조작활동 잘하는 게 교육적일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편견을 갖고 있고” (심층면접 2차, 10월 26일)

3) 물리적 공간 이용의 한계

신체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확보된 강당이나 유희실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신체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실에 있는 교구장 등을 한 곳으로 밀어 놓고 신체활동을 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경우에는 다른 반과 시간을 배정해서 강당, 놀이터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은 신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필요시 마다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 등 실시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신체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큰 기구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시마다 매 번 설치하고 사용 후 치우는 것이 쉽지 않다고도 하였다. 따라서 신체활동을 위한 큰 기구들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쉽도록 비치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필요함을 반영한다. 신체활동을 활발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하기 편리한 환경적 요건을 마련해주어야 하는데 실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신체활동 공간 및 사용이나 신체활동을 위한 기구 사용에 있어서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대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이제 실내에는 있는데, 바깥 놀이터가 없거든요. 실외 놀이터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쉽긴 해요.” (심층면접 3차, 10월 27일)

“저희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영역이 어쨌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영역이 조금... 협소하고 그리고 큰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어렵고...” (심층면접 3차, 10월 27일)

“여건이나 환경들 때문에 제한이 있을 때가 있어요.” (심층면접 3차, 10월 27일)

“사췌는데 그걸 용이하게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잠깐 하려고 하는데 그거 꺼내야 되죠, 또 안사는 게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하니까, 특별활동 강사가 가지고 오는 게 나아요. 보관할 데가 없고, (중략) 저는 개인적으로 공간이 넓고 항상 그게 비치되어 있으면 활용을 하겠지만, 교실에 그게 비치될 수 있는 공간은 아무데도 없다는 거.” (심층면접 2차, 10월 26일)

4) 부모의 태도

유아들은 여러 번의 시도 및 반복을 통해서 운동 기능을 습득하고 발달시켜 나간다. 따라서 유아들에게 시행착오는 신체 발달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 반드시 필요하며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 과정을 반복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이 유아의 신체 발달을 이끌기 위해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신뢰와

믿음을 갖고 이를 지지하는 부모의 태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물론 위와 같은 생각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유아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전제가 기본으로 깔려야 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의 원장(원감)과 교사들은 신체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유아들의 안전 문제를 가장 많이 걱정했으며 실외 활동을 포함하여 신체활동을 하는 중에 유아들이 다칠까봐 긴장을 많이 한다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교사들은 하루 일과 중 신체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외 놀이 계획 시 미세먼지, 황사 등 날씨 등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날씨가 좋은 날 실외 활동을 계획했지라도 부모들이 자녀가 실외활동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유아의 신체활동은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 황사 등 유아의 신체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외 놀이터 같은 경우는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춥거나 너무 덥거나 했을 때, 사실 그 평가인증에도 한 시간 동안 나가 놀아라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더울 때는 아이들 엄마들 같은 경우는 요새는 미세먼지도 많잖아요.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만 높아도 집 나가나요? 나가서 놀아야 되나요? 막 이렇게 이야기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다 신경을 쓰다보니까 굉장히 실외 공간에 제약이 많아요.” (심층면접 3차, 10월 27일)

“바깥 놀이 한다고 해도 그 알레르기 이런 거, 꽃가루 알레르기, 지금 황사, 미세... 어머님들이 굉장히 예민하신 것들이 많아져서 매일 나가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 입에서 엄마가 오늘은 나가지 말래요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옆반에 가있고, 그 친구만. 어머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반에 맡겨두고 저희만 나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구요.” (심층면접 3차, 10월 27일)

“신체활동을 하려고 하면 사실 교사가 굉장히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게 많습니다. 놀이터 가면 저희는 안전, 안전 교육을 하면 놀이터는 아이들이 노는 곳이 아니라 위험지대다, 그렇게 각오하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떤 상황에서나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교육을 백 날 천 날 정말 열심히 했더라도 아이가 혼자 넘어져서 다치면 교사가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가 더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심층면접 2차, 10월 26일)

5) 정보 습득의 한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하루 일과 중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 중

상당 부분의 시간을 교육과 보육을 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그로 인해 교사들은 신체활동을 계획하기 위한 교육 정보 및 그와 관련된 견학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 또한 신체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를 알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데서부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더 많은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은 필수불가결하다. 교사들이 정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교육 또는 보육시간이 평균 9시간-10시간을 상회(김길숙 외, 2015)하는 긴 근무시간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들이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근무시간 내에 교육과 보육을 위해 관련 정보를 탐색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 사료된다. 따라서 신체활동과 관련된 교육과 보육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서 제공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가 좋았던 건 그런 자료들을 얻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현장학습 장소라든지, (중략) 이런 게 조금 제공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심층면접 3차, 10월 27일)

2.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요구 사항

원장(원감)과 교사들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며 교사가 필요시마다 보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 제작이 같이 보급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교사 재교육 시 신체활동을 재교육 과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필수로 배우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신체활동에 대한 교사의 태도만이 아니라 신체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지식의 부족함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원장(원감)과 교사들은 부모교육을 통해서 부모들이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고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1) 프로그램 개발·보급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원감)들은 유아들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연령에 적합한 신체활동이 제공되기를 요구하였다. 또한 정규 교육 과정 중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안내서와 지침서 등이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신체 발달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신체활동 실시를 통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연령에 적합한 다양한 운동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신체활

동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수업을 진행할 때 사용되는 교재·교구에 대한 보급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신체활동을 실시하는 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클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신체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교재·교구의 부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만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교재 및 교구 개발도 같이 이루어지고 보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반영한다.

“연령들에 적합한 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더 제공된다면 선생님들이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심층면접 3차, 10월 27일)

“신체활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제공되고 있는 누리과정 경우는 사실 주제와 관련한 활동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발달 상태에 따라서 제공하면 좋을 것 같고 신체활동 안 내서나 지침서 같은 것들이 함께 제공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제와 관련되는 것도 제공하지만 개인적으로 오전에는 더 주제와 관련된 활동, 오후 실외 활동은 좀 더 아이들이 편안하게 신체를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심층면접 3차, 10월 27일)

“음, 자료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아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자료 제공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심층면접 1차, 10월 15일)

2) 프로그램 활용 방법에 관한 동영상 제작

교사들은 대집단 혹은 소집단으로 신체활동을 진행할 때 기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한 동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신체활동 수행을 꺼리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신체활동을 위한 기구 활용에 대한 다양한 교수 방법 또는 운동 동작 등에 대한 설명을 책자로 보급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고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제작도 병행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러한 요구는 스마트폰 등의 사용이 익숙한 세대의 특성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교사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수방법에 관한 자료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면 교사들도 충분히 외부강사만큼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심층면접 3차, 10월 27일)

“신체활동 기구라는 게 사실 신체활동의 다양한 방법에 대한 안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다양한 신체활동에 대한 안내나 예시 같은 게 있다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심층면접 3차, 10월 27일)

“제일 교사들이 접하기에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책자인데, 신체활동 같은 경우는 그냥 설명이나 이런 걸로만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동영상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필요할 때 찾아보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심충면접 3차, 10월 27일)

3) 교사 재교육 시 신체활동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와 원장들은 신체활동 진행 시 동작을 위한 교육은 전공 영역별 전문적 지식이 좀 더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교사 재교육 과정에서 신체활동과 관련된 과목을 필수적으로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교사 재교육을 통해 교수자로서 신체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신체활동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정확한 지식 활용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반영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재교육 시 이루어지는 교과목들로는 보육교사의 일반직무교육인 경우 인성·소양 영역, 건강·안전 영역, 전문지식·기술 영역 크게 3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전문지식·기술 영역에 신체·예술(음률) 활동 운영에서 발달 이해와 운영 방법에 대한 내용을 4시간 다루도록 되어있으며 심화에서 운영의 실제와 운영 실습을 4시간 다루도록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7).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최근에 기존의 일반직무교육에서 변경된 내용으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재교육과정에 있어서 신체활동 관련 지식 습득에 대한 교사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다. 또한 유치원 교사의 자격 연수나 직무 연수는 기본소양영역, 역량영역, 전문영역별로 구성되어 연수가 실시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유아의 신체활동 지식을 함양시켜주기 위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김은설·김길숙·이민경, 2015).

“내가 신체활동에 관련된 것을 알아야겠다고 하는데 잘 안돼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건 직무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의무적으로 받는 직무교육에 지금 표준보수교육과정 교사 교육하는 거에 신체라는 부분을 따로 꺼내지 않았다는 거,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3년에 한 번씩 받는 어린이집에 직무교육이 의무적으로 있거든요, 승급교육이. 그 교육에 신체활동이 선택권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그 교육이 들어가지 않으면 교사는 재교육에서 또 빠지는 거죠. 학교에서도 안 배웠죠, 현장에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죠. 3년마다 받는 직무교육을 받지만 그 과목이 없다는 거는 중요도가 낮다고 느끼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은 멀죠.” (심충면접 2차, 10월 26일)

4) 부모 교육

원장(원감) 및 교사들이 부모의 의견을 간과하기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쉽지 않다. 그러나 가르치는 자로서 유아에게 바람직한 교육 수행을 위해서

는 부모가 잘못된 인식을 보일 때에 이를 바로 잡는 노력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원장(원감)과 교사들은 부모들이 부모로써 해야 할 일을 가정에서 하지 않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에 대해서 어려움을 피력했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부모에게 올바른 신체 발달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와 관련된 지식을 알려줌으로써 가정에서 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실시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부모 교육 참여가 어려운 부모를 위한 부모 교육용 자료를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유아의 건강은 가정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가 크며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애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정말 작게 다친 것도 너무 걱정을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신체활동을 같이 하기보다는 그냥 아예 중간에 서서 다치는 것만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그런 전반적인 인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홍보차원에서 유치원은 학원이랑 다르고, 그런 아이들 전반적인 발달을 돕는 하나의 기관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심층면접 3차, 10월 27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신체활동에 대한 선호 및 습관화를 조기에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OECD, 2013) 하루의 많은 시간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보내야만 하는 유아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원장(원감) 및 교사가 인식하는 신체활동 실시상의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원장(원감) 및 교사가 인식하는 신체활동 실시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신체활동을 진행하는 교사들이 신체활동 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 교사에 따라서 신체활동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차이, 신체활동을 위한 큰 기구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의 부족, 설치상의 어려움 등 신체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공간의 한계를 어려움으로 꼽았다. 또한 신체활동 시 다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나 날씨, 황사 등에 대한 부모님들의 태도, 신체활동에 관한 교육 정보나 견학 등과 관련된 정보 습득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김희영(2012)과 지성애(2008)의 연구결과와 일관된 맥락을 유지한다. 김희영(2012)의 연구에서는 운동장소나 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아 활동 기회가 줄어든다고 인식하고 있었으

며, 김은희·유준호(2012)의 연구에서도 교사들이 유아들과 실외놀이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전지도와 놀이참여자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신체활동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의 확보와 운동기구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실내·외 환경에 대한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체활동 촉진을 위한 안전 장비 설치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유아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신체 발달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부모의 이해 도모와 부모들에게 신체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원장(원감) 및 교사가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신체활동을 위한 연령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교구에 대한 보급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활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 제작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신체활동이 전공 영역별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사 재교육 시 신체활동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신체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체활동은 유치원·어린이집에서만 강조한다고 교육적 효과가 큰 것이 아니라 가정과 연계가 잘 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신체활동에 대한 부모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김외국(2008)의 연구에서 유아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대한 필요성(공립 83.2%, 사립 88.9%), 유아 체육 교육에 대한 연수의 필요성(공립 약 75%)에서도 나타난 결과이며, 지성애(2008)의 연구에서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5.5%), 교사 연수의 필요성(28.4%)이 제기되어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는 결과들이다. 이렇듯 다수의 신체활동 관련 연구에서 신체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보급에 있어서도 활동 방법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구현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을 보였다. 또한 실제로 신체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교재·교구의 필요성도 밝히고 있어서 수업을 준비하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교사들을 고려한 세심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원장(원감)들은 유아에게 신체활동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신체활동 기구 사용에 대한 지식의 부족, 교사의 정적 활동 선호, 신체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공간의 부족, 미세 먼지 등 환경적 영향, 그리고 그에 따른 부모의 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며 이 때 프

로그램 활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 제작이 병행되어야만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속적인 부모교육과 교사 재교육 시 신체활동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교사들이 신체활동에 대한 이론적 및 경험적 지식과 신체활동에 사용되는 기구 활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한 유아기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자녀 육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영유아의 친권자 및 후견인 또는 보호자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모자보건법」 제4조). 이는 부모들이 일차적으로 자녀의 건강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4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율을 살펴보면, 3세 이상 유아의 경우 90%정도(3세 89.2%, 4세 90.6%, 5세 90.5%)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심지어 1세(70.1%), 2세(86.3%) 영아의 경우도 어린이집 취원율이 70%를 넘고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14). 이렇듯 우리나라 영유아의 기관 교육·보육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의 건강관련 포함 많은 사항에 대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책임지고 해주기를 바라는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원장(원감)과 교사들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해 주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피력했다. 이러한 문제는 핵가족이 확산됨에 따라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고 저출산 정책의 슬로건에 의한 국가에서 아이를 키워준다는 국민 인식의 변화에서 발생된 문제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 인식변화는 정부에서 표방하는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숙고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앞에 제시하였듯이 부모가 일차적으로 자녀의 건강을 책임지고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법으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양육 정보 및 부모 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미흡함을 보이는 측면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바람직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교, 직장,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면대면 교육인 부모모임, 출판물이나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부모 교육, 언론 기사 등을 활용한 관련 정보 제공은 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신체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원감)들은 유아의 운동 기능관련 신체활동 실시를 위해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원하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신체활동은 주제와 관련된 활동으로 구성되어 이루어진다. 그러나 장시간 기관에 머무르고 신체활동이 부족한 현시점의 유아의 건강을 위해서는 실시되고 있는 주제와 상관없이 매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더불어 연령에 적합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 시 신체 발달 및 운동 발달 관련 전문적 지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보육 전공 전문가뿐만 아니라 체육 관련 전공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신체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진행 시 필요한 관련 교구·교재를 같이 제작하여 보급하고, 정확한 운동 방법 및 동작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동영상 제작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유아가 바람직한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어 궁극적으로 유아가 건강한 신체 발달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셋째, 신체활동이 유아에게 의미 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 기관 및 지역 사회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각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 정책 및 사업은 각 나라의 신념과 소득에 따라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WHO, 2012)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소아 비만의 증가에 문제점을 깨닫고 각 국가의 정부 내에 아동 비만 방지 정책 수립 요구와 건강한 신체 발달 도모를 위한 환경 조성, 지역사회에 기반 한 중재안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아동 비만의 심각성을 깨닫고 올바른 건강 교육을 유치원·어린이집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실시함으로써 유아들이 신체활동을 습관화하여 전 생애에 걸쳐 꾸준히 함으로써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유아들이 신체활동을 선호하고 운동을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 및 지원하고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기금을 지원 사

업에 사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2조).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 시책에 포함하여 국민체육 진흥 시책으로 명시하고 있다(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3).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은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물리적 공간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실외 놀이터가 미설치 되어 있는 곳도 많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내 공간의 경우에도 대근육 활동 등 다양한 신체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이 갖추어지지 못한 곳도 많다. 게다가 실외 놀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약점들이 있다. 부모들은 비가 오는 날이나 황사·미세먼지가 심한 날 등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비, 바람, 햇볕을 막아줄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마련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민정원 외, 2014). 유아의 신체활동량 증가 및 운동의 생활화 도모를 위해서는 다양한 신체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연령에 적합한 놀이터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 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실내 체육시설은 놀이터뿐만 아니라 유아가 부모와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용이한 환경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초·중등학교 및 고등학교에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은 근접성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학교 내에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은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3항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학교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학교 내 실내 체육관은 근접성에 있어서 지역 주민이 활용하는 데에 장점이 있고, 특히 어린 유아의 경우 부모 혹은 형제와의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받기 때문에 학교 내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고 확충하는 방안은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비록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적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1시간 이상의 심층 면접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원장(원감) 및 교사가 인식하는 신체활동의 실시상의 어려운 점, 요구사항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들을 근거로 양적 연구로 병행하여 수행된다면 좀 더 객관적인 결과 도출을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재희·문혜련(2014). 어린이집 체육교사의 수업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7, 79-89.
- 김길숙·문무경·이민경(2015).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권익 보호 실태 및 증진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길숙·박진아·최윤경·임현정·이세용(2016).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I): 프로그램 효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김미숙·전진아·하태경·김효진·오미애·정은희·최은진·이봉주·김선숙(2013). 아동종합실태 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설·김길숙·이민경(2015). 영유아교사 인성 평가 도구 개발 및 교육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권미경·조혜주(2012). 교사양성과정 내실화를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과운영 및 교사의 직무분석.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희·유준호(2012).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실외놀이의 어려움과 활성화 방안. 유아교육학논집, 16(4), 27-52.
- 김외국(2008). 신체활동교육에 대한 공사립 유아교육기관의 실태 및 교사 인식 비교.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진희(2012). 아동의 과체중·비만과 정신건강문제의 관계-집단따돌림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40, 201-228.
- 김희영(2012).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동작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한국무용기록학회, 26, 53-67.
- 민정원·김길숙·임현정·송신영(2014). 유아기 신체건강 증진방안: 소아 비만 예방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2017).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5). 2015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년도.
- 육아정책연구소(2014). 2014 유아교육·보육 통계.
- 이행신·남지운·김도희·이지연·연미영·권성옥·박승주(2014). 2014년 제5회 비만예방의 날 행사·홍보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
- 전숙영(2008). 아동의 비만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 탄력성의 중재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 26(5), 155-163.
- 주봉관·김상결(2016). 유아교육기관 방과후 체육특성화활동 운영실태 및 유아교사의 인

- 식 조사. 유아교육학논집, 20(6), 167-188.
- 지성애(2008). 유아 운동교육 실태와 교사의 인식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2(2), 5-31.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 2012년 국민영양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 OECD(2011). *Health at a Glance 2011: OECD Indicators*. Paris: Author.
- OECD(2013). *Health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Paris: Author.
- Sandra, L., & Solveig, A. (2015). Social competence and obesity in elementary school.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5*(1), 153-158.
- Schwartz, C., Waddell, C., Barican, J., Garland, O., Nightingale, L., & Gray-Grant, D. (2010). The mental health implications of childhood obesity. *Children's Mental Health Research Quarterly, 4*(1), 1-20.
- WHO(2012). *Prioritizing areas for action in the field of population-based prevention of childhood obesity - A set of tools for member states to determine and identify priority areas for action*. Geneva: Author.
- WHO(2015). Health topics - Obesity. <http://www.who.int/topics/obesity/en/>에서 2015. 9. 4. 인출.

·논문접수 8월 9일 / 수정본 접수 8월 30일 / 게재 승인 11월 8일

·교신저자: 김길숙, 삼육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이메일 gskim@syu.ac.kr

Abstract

A Study on the Teacher's Awareness of the Difficulty of Physical Activity in Kindergarten and Daycare Center

Gilsook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ways to promote childhood health through the analyses of the in-depth interview with ECEC staffs. The subjects consist of 14 ECEC staffs; they were interviewed in depth for one and a half hou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difficulties with physical activities included (1) the lack of knowledge about the use of physical activity instruments, (2) kindergarten-daycare center teachers' attitudes toward physical activity, (3) the limitations of the physical space, (4) the attitudes of parents, (5) the limitations of acquiring information. The requirements for physical activity promotion were (1) program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2) making video (3) designating physical activity as a mandatory subject in service training, (4) parent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order to enhance childhood health, the following could be suggested: strengthening parent's capability for child care,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physical activity programs, consolidating the connections among parents, institutions, and community, and expanding indoor gym facilities.

Key words: childhood health, physical activity, kindergarten-daycare center teacher